‘남도의병 역사공원’ 건립 박차

전남도, 보성·장흥·나주 예비후보지 3곳 실사
보성 유치위 결성 역사성·당위성·접근성 설명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 후보지가 보성군과 장흥군, 나주시 등 3곳으로 발표되면서 최종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사 조사에 나섰다.

5일 전남도와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전남의 의병역사를 정립해 정의로운 역사와 민주화에 앞장선 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1억원을 들여 지난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33만㎡ 부지에 1만6,500㎡ 내외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역사공원에는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조형물, 학예실, 교육관, 편의와 놀이시설 등이 들어선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 대상지는 역사적 상징성, 접근성, 부지 확보와 개발 용이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용역을 통해 확정, 시. 군 공모를 통해 지난 3일 보성군을 비롯한 장흥군과 나주시를 예비 후보지로 확정했다.

그동안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후보지가 3개 시·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역사학자 및 관광 문화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분을 비공개로 지난 4일 오전 10시 보성군 벌교읍 소재 소설 태백산맥 문학관을 방문을 시작으로 장흥군과 나주시에 대한 현장 실사에 돌입했다.

역사공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던 보성군은 이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본격화했다.

이날 선정위원들을 맞이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역사공원이 보성군에 유치돼야 하는 역사성과 당위성, 접근성 그리고 미래의 활용 가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군수는 “보성군에 남도의병 역사공원이 유치될 경우 인근에 비어 있는 육군 시설을 활용, 병영 체험과 나라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석한 향토사단 현지 대대장은 “의병은 곧 군인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역사를 보더라도 약무호남 속에는 약무보성이 있다”며 “전남도의 역사공원이 보성군으로 확정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군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성군의회도 “남도의병 역사공원의 보성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소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중도방죽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위원들은 현지 실사를 마친 뒤 인근 장흥군을 거쳐 나주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6일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한 최종 대상지를 확정 발표한다. 이후 전남도는 기념관 건립 및 선양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가 남도의병 역사공원 대상지 선정위원들에게 보성군의 역사성과 당위성, 접근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 소방안전정책 적극 추진”

제3대 박상진 고흥소방서장 취임

고흥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박상진 소방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 서장은 취임사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방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재난 발생 시 우수한 소방력 투입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3년 소방에 첫발을 내디딘 박상진 서장은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고흥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방본부 상황관리팀장·소방감사담당관을 역임하고 제3대 고흥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여수 출신으로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박 서장은 지난 26여년간 다양한 소방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으며 일선 현장경험을 거치면서 전남도민의 안전과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또한 박 서장은 직원 상호간의 동료애를 중요시 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각종 현장과 행정에서 우수한 지도능력으로 소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보성 예견된 탕평 인사 후문

행정 2명 세무 1명 사무관 승진
회전문 인사 아쉬움으로 지적

공로연수파견 및 명예퇴직, 교육수료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을 승진시키는 등 6일자 인사발령을 단행한 보성군 인사는 편가르기 없는 예견된 탕평 인사였다는 후문이다 .

본청 간부로 분류되는 서기관 1명을 포함한 행정직 사무관 2명이 공로연수에 돌입함에 따라 행정직 또는 세무직이 승진할 것 이라는 당초 예상대로 120여명의 6급 가운데 행정직 2명과 세무직 1명이 승진발령 됐다.

인사관계자는 6급 승진 및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능력과 경력을 중시했고 7급 공채 출신들을 국. 과장에 전진 배치하는 등 업무 능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6개월 뒤 조직을 떠나게 되는 특채 직원들에 대한 특단의 배려와 양보하는 미덕으로 동료애까지 느낄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김철우 군수의 고뇌가 엿보인 결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연고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 본청과 읍·면간 폭 넓은 교류가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순천 전국 최초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

여수 포스트코로나 대응
24일 시민공감 토론회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

순천시가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했다. 특히 지난달 30일자로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된 불법행위감찰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꾸려지며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시민들이 지난 1일 이후 산림 훼손, 불법 전용 등의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민선7기의 시정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 땅, 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 자연,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불법행위감찰팀 신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산지 불법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산지 불법개발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여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한다.

여수시가 오는 24일 웅천 장도 아트카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의 여수를 내다보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재하고 시민과 전문가 100여 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구례 기초문화교육 공모 전남 유일 선정

구례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사업에는 전국에서 70개 지자체가 신청해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구례군이 선정됐다. 사업은 사회적기업인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추진한다.

구례군과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올해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2022년까지 구례형 특화 콘텐츠를 계발하고 구례 자원 및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구례형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계하기 위해 구례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구례=김진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구례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구례군이 최근 광주·전남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발생지역의 방문을 자제하는 긴급재난문자 송출과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알리기 위한 원격마을방송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시설, 경로당, 실내체육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마스크를 일상 착용해 코로나19 청정지역 구례의 위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고흥 청소년 참여기구·동아리 연합회 발대식

고흥군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최근 청소년 참여기구와 동아리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청소년과 지도교사 60여명이 참여해 청소년 참여기구와 청소년 동아리 임원진을 구성하고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청소년참여기구와 동아리는 청소년 정책 수립과 사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다.

특히 고흥군은 아동·청소년 권익향상을 위한 군민 참여 원탁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기구와 동아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순천 도시재생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순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수제맥주 양조전문가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양조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수제맥주 교육은 수제맥주, 효모, 주세법 이해 등 이론식 강의뿐만 아니라 맥주 만들기 실습, 양조장 설립의 이해 등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순천시는 수제맥주 관련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 수제맥주 사업 운영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수제맥주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